

멀고도 가까운 단 하나의 이름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 살아가는 아버지도
 구레 사람들도 나는 늘 신기했다.
 잘 죽었다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과 아버지는 어떻게 술을 마시며 살아온 것일까?
 틀을 수 없는 답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알 것 같았다.
 긍계 사램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다.
 긍계 사램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 『아버지의 해방일지』

WRITER



안보윤 소설가

『어떤 진실』 제68회 현대문학상 수상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좀 이상한 방식으로 게을렀다. 게으름을 만각하기 위해 부지런을 떠는 타입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 주말 한 낮에 네 시간쯤 만화영화를 보면서 빈둥거리고 싶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방을 정리하고 학교 숙제를 끝낸 뒤 책가방까지 미리 싸놓아야 했다. 아무 걱정도 채근도 없이 오롯이 빈둥거리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게으른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가량 집에 콕 틀어박혀 방학 숙제를 끝내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의 게으름에는 항상 '마음 편히'가 따라붙는 탓이었다. 마음 편히 게을러지기 위해 나는 글짓기 숙제를 자주 선택했다. 만들기와 그리기는 조금만 방치해도 쉽게 부서지거나 귀퉁이가 찢어졌다. 그에 비해 종이에 속속 써넣은 문장들은 반듯하게 접어 책 사이에 끼워두면 그만이었다. 부피도 불편한 장식도 없는 문장들이 나는 좋았다. 종이를 펼치기 전까지 내가 어떤 말을 써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비밀스러움도, 문장을 읽어나가는 순간 잔가지가 짹짹 뻗어 나가듯 나의 세계가 힘을 얻어가는 과정도 모두 좋았다.

6월이 되면 항상 쓰게 되는 문장들이 있었다. 세월에 따라 그것의 제목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내 기억의 시작은 '반공글짓기'였다. 당시에는 초등학교였으니 '전국국민학생반공글짓기 대회' 정도 되겠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통일글짓기'로, 고등학생이 될 즈음에는 '국가보훈글짓기'로 이름이 바뀌었다. 덕분에 6월 첫째 주는 늘 분단국가, 우리의 소원 등의 단어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열 살의 주말에는 무찌르자 공산당, 같은 문장들을 원고지에 적어 넣었다. 열다섯 살 월요일에는 우리는 한민족, 손에 손잡고 써넣었고 열여덟 살 방과 후에는 호국선열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

넣었다. 각각의 퀘를 가지고 있던 그 문장들은 말끔하게 접히지 않았다. 책 사이에 끼워 넣어도 머리를 빼꼼 내밀고 나를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어떤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떤 문장은 아무리 마침표를 찍어도 끝나지 않았다. 게으른 한나절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갈무리 짓기엔 너무 무거운 말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전쟁과 죽음, 혁명과 배신 같은 단어들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채근하는 것만 같았다.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평생을 그토록 무거운 말들에 묶여 살아온 아버지와 그를 바라보는 딸 아리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격동의 시대를 겪어온 아버지는 이제 여든의 치매 노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각각색의 모습으로, 가능하고 질긴 인연의 끈을 따라 장례식장을 찾아온다. 아버지에게 헤아릴 수 없는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기도, 아버지의 오지랖 넓은 마음 써나 지식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니 딸 아리에게는 이런 기억들이 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데리고 어디든 다녔던 아버지가 선술집에서 못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팩 하니 성질을 내며 감시했던 날의 기억, 암내 때문에 혼사가 수차례 깨져 방에 틀어박힌 동네 처자가 아버지의 소개로 수술을 받은 뒤 말끔히 살아내게 된 기억.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연도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다문화가정 아이와 담배를 나눠 피우며 허물없이 지냈던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삶에 대한 열의와 희망을 심어 주었는지에 대해서다. 외면할 수도 마음껏 품을 수도 없는 인연 역시 존재한다. 아버지로 인해 험난한 생을 살아야 했던 사촌오빠가 암환자가 되어 조문을 오는 경우가 그렇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

가는 중"인 사람의 뒷모습을 딸은 그저 먹먹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상상을 가졌음에도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던 친우의 한없이 반복되는 조문 역시 애뜻하다. 불가항력 속에 있는 사연들이 산재해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사람들이 아닌 시대의 몫이다. 조문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이자 아버지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딸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완성해 낸다. "아버지는 갔어도 어떤 순간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나의 시간 속에 존재할 숱한 순간의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졌다." 사상과 죽음에 기반해 있지만 소설은 시종일관 유쾌하고 거침없다. 혹독한 현대사의 질곡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각자의 목소리와 이력을 가진 채 힘 있게 행동하고 있는 덕이다. 매일같이 사람을 믿고 무람없이 말을 걸고 어떤 편견도 없이 이해하려 애쓰며 누구보다 항상 앞서 뛰기 위해 서두르던 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싫었다"고 말하던 딸은 어느새 아버지가 걸어온 시간들을 고이 더듬어 가고 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 속에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 없는, 단 한 순간도 게으름 틈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읽는다. 그럼에도 상실이 아닌 회복에 대해, 사상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인간 본연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나는 읽는다. 그리고 있다면 잔잔한 별 아래 마음껏 게으름 피울 수 있는 6월의 한낮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